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및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이정숙¹ · 김수진¹ · 권영란² · 김보영³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¹,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²,
광주광역시남구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간호사³

Effects of a Resilience Enhancement Program on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Lee, Chung Sook¹ · Kim, Soo Jin¹ · Kweon, Young Ran² · Kim, Bo Young³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³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Gwangju Namgu Mental Health Center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effects of a resilience enhancement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The research design was a quasi-experimental pre-and-post-test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methodological comparison study. The participants for the study were 124 (experimental=60, control=64) middle school students in G city.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the program for eight sessions. The control group did not receive any treatment. From April to June 2009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using the Kolmogorov-Smirnov test, χ^2 -test, Fisher's exact test, and t-test with SPSS/WIN 15.0 program. **Results:** After the treatmen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terms of problem solving ability ($t=2.52$ $p=.007$) and school adjustment ($t=1.66$, $p=.004$), but not in level of self-efficacy ($t=0.80$, $p=.212$).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is program can be used in school based practice a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s, Resilience, Adjustment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적응기제들을 성공적으로 발달시켜 나가는 청소년들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격적 행동, 학업태만, 물질오남용, 폭력, 성 비행 및 자살 등의 부적응적 행동으로 반응하기도 한다(Sin & Gu, 2002). 즉 동일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청소년 개인이 그 위험요소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이에 대한 정서적, 행동적 대응양식이 매우 다를 수 있고,

주요어: 적응유연성, 중학생,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학교적응력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weon, Young Ran,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375 Seosuk-dong, Dong-gu, Gwangju 501-759, Korea. Tel: 82-62-230-6325, Fax: 82-62-230-6329, E-mail: yrk@chosun.ac.kr

- 본 연구는 2009년도 전남대학교 연구년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her sabbatical year of 2009.

투고일 2010년 7월 19일 / 수정일 1차: 2010년 11월 4일, 2차: 2010년 12월 7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7일

청소년이 가진 개인적, 환경적 자원에 따라 스트레스로 유발된 부정적인 증상에 대해 적응유연하거나 취약성을 보인다(Yoo & Shim, 2002). 특히 세계화, 지식정보화, 문화화로 대표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변화에 잘 적응하고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어떤 역경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다(Jeong, 2007).

적응유연성은 개인들이 중요한 삶의 역경이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보여주는 능력(Luthar, Cicchetti, & Becker, 2000)으로, 청소년들이 역경이나 변화, 스트레스 상황 등에 대해 보다 잘 적응하는 신념, 태도, 행동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적응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한 개인이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삶의 주요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역경, 도전, 변화 등에 대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Jeong, 2007).

이런 측면에서 적응유연성은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적응유연성의 하부구성요소로 평가된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특성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능력부족보다는 노력부족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패 후에도 빠른 속도로 효능감을 회복하게 된다(Bandura, 1977).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삶의 도전에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 및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개인의 삶에서의 적응과 안녕은 문제해결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사소한 생활 사건들이든, 급작스럽고 중대한 사건들이든 간에 그것들은 사람들의 신체적, 심리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적응유연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거의 나타내지 않고(Higgins, 1994), 문제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다루고 이겨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적응유연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인지적 효율성이 높아서 도전적인 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해결력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Block & Kremen, 1996). 뿐만 아니라, 적응유연성은 한 개인과 그 개인이 처한 상황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청소년의 중요한 생활영역인 학교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Bak, Lee, & Song, 2010). 적응유연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압력을 완화시키는 성격적 특성이나 환경적인

보호요인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충동 통제를 잘하는 행동특성을 보임으로써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Jeong, 2007).

청소년기 학교적응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올바른 사회화과정을 습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Roeser와 Eccles (1998)의 주장처럼 초기 청소년기 동안 학업적, 심리적 기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학업적 능력과 학교에 대한 가치에 있어서 학생들의 신념이 낮아지며, 수업 이탈, 무단결석, 그리고 분노감정이 증가되어 궁극적으로 학교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국내의 Lee와 Cho (2010)의 학교적응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시기가 학교적응력이 감소하며, 특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적응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역경이나 변화,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 등에 융통성 있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고 학교적응력을 증진시키는 적응유연성을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내의 청소년 대상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Bak et al., 2010; Han, 2006; Jeong, 2007)는 미비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실적이정이나 잠재적 중도탈락과 같은 특정 위험요인을 고려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적응유연성은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Moon & Hwang, 2006; Song, Lim, & Nam,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위험요인에 처해있지는 않지만, 발달과정 상 학교적응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초기 청소년 시기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적응유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중 중재 불가능한 위험요인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이보다는 오히려 일차적으로 중재 가능한 개인적 보호요인인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사회 환경적 보호요인인 학교적응력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둔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 연구대상자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및 학교적응력 정도를 확인한다.
-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및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Hernandez (1993)의 학교적응 유연성 모형에 근거를 두고 Common Wealth of Australia (2001)의 Enhancing Resilience Program을 기초로 개발된 학교 현장 위주의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이다(Figure 1). 적응유연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다(Compass, Hinden, & Gerhardt, 1995). 이제까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위험요소들을 분석하고, 밝혀진 위험요소들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위험요인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해 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적응유연하게 극복하고 발달해 나가는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다. 특히 위험요소에만 초점을 둔 접근방식은 청소년 문제를 유발시키는 복잡한 위험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통제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적응유연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위험요인에 초점을 둔 접근방법보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향상시키는 간접적인 접근방법이 보다 현실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Han, 2006). 보호요인은 위험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문제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으로(Garmezy, 1985),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으로 타고난 기질, 성별, 자기효능감, 자신감, 자기수용성, 낙관적 태도, 내재통제 소재, 높은 지능, 신앙심 등과 같은 개인적요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와의 좋은 관계, 가족 응집력, 부모의 화합 등과 같은 가정적요인, 사회지지적인 관계망, 성공적인 학교경험 등과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을 들고 있다(Moon & Kim, 2002).

적응유연성이 높은 청소년은 개인적 측면에서 성취 지향적이고,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며(Kim, 2002), 가족적인 측면에서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외부지지체계로 좋은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바람직한 성인모형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생활 측면에서는 부모의 현실적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고,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며, 학교규범을 잘 준수하며, 동시에 교사들로부터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뛰어나다(Moon & Kim,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재 불가능한 위험요인들보다는 오히려 일차적으로 중재 가능한 개인적 보호요인인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사회환경적 보호요인인 학교적응력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둔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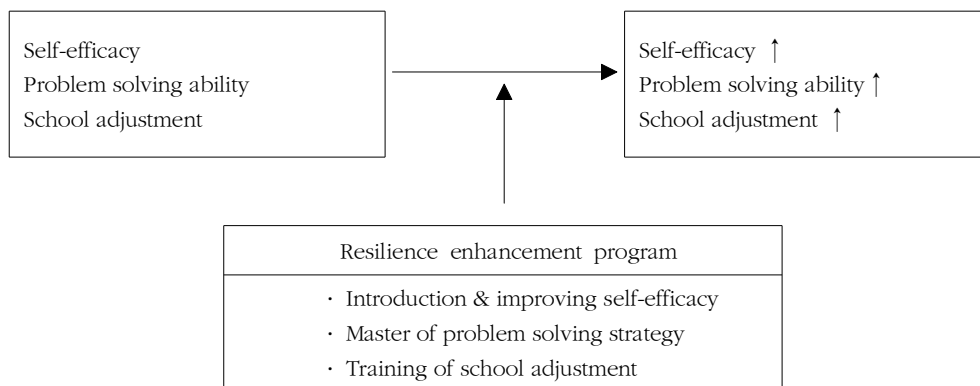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 및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Figure 2).

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	Ye ₁	X	Ye ₂
Cont.	Yc ₁		Yc ₂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gure 2. Research design.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G시 소재 G중학교(실험군)와 C중학교(대조군) 1학년 학생 중 학교장 및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협조를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본 질문지의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수락한 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G*power 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effect size $d=.75$, $\alpha=.05$, power $(1-\beta)=.95$ 로 분석한 결과 하나의 집단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전체 9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탈락자를 감안하여 130명(실험군 65명, 대조군 65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 정신보건위원회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등이 실험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응유연성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대조군은 실험군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 사후 설문지 작성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연구대상 학급 선정은 교무부장과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2개 학급의 65명을 실험군으로 배정하였으며, 대조군은 실험군과 학교 규모와 시설, 위치가 비슷한 곳에 위치한 중학교의 2개 학급에 배정하였다. 자료수집은 프로그램 실시 전 4월에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각각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실험군에게 총 8회기의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을 매주 창의력 재량활동 시간에 45분씩 실시하였다. 이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사전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사후 조사가 끝난 후 9월부터 10월까지 대조군에게도 실험군과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8주 동안 제공하였다.

자료분석 시에는 연구 도중 전학하거나 또는 사전·후 검사지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완성하지 못한 실험군 5명, 대조군 1명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대상자로 총 124명(실험군 60명, 대조군 64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계획된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에 관련된 개인의 신념이다(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Kim (1997)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6점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24점에서 14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하위요인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로 구분된다. Kim (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8$ 점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이란 주어진 상황을 탐색하고 이해한 후 체계적 단계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기에는 많은 수의 대안들을 파생할 수 있는 능력, 이들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여 긍정적 결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Heppner & Peterson, 1982). 본 연구에서는 Heppner와 Peterson (1982)이 개발한 문제해결척도(problem solving inventory, PSI)를 본 연구자들이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PSI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6점 척도이며, 총점의 범위는 32점에서 19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인 문제해결 행동과 태도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PSI의 하부요인을 살펴보면, 문제해결능력과 행동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감(problem solving confidency, PSC) 11문항, 문제해결의 실재능력이나 기술을 포함하는 접근-회피 스타일(approach-avoidance style, AAS) 16문항, 문제에 부딪혔을 때의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 개인적 통제(personal control, PC)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Heppner와 Peterson (198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3) 학교적응력

학교적응력은 학생들이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학교 생활과 관련된 제반 학교상황을 변화시키며, 학교상황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 학생자신과 학교상황과의 균형을 꾀하는 과정으로, 이는 교사와 다른 학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Kim, 2000). 본 연구에서는 Kim (2000)이 개발한 것으로 총 4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하위영역은 학교환경 적응 9문항, 학교교사 적응 9문항, 학교수업 적응 8문항, 학교친구 적응 8문항, 학교생활 적응 7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Kim (200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4)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

본 연구의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은 Hernandez (1993)의 학교적응유연성 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팀과 G시 정신보건센터 청소년담당자 2인의 자문을 받아 Common Wealth of Australia (2001)의 Enhancing Resilience Program을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적응유연성강화 프로그램의 목적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및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삶의 역경이나 변화, 스트레스 상황 등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회기에서 2회기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단계로 다양한 활동을 통한 참여자와의 신뢰감 발달을 도우며, 집단 목표를 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과 장점을 확인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둘째, 3회기에서 5회기는 문제해결능력증진 단계로 강의와 활동 중심으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식을 확인하며, 동시에 다양한 문제해결방식을 찾아본 후 역할극을 실시한다.

셋째, 6회기에서 8회기는 학교생활적응 단계로 참여 학생들이 서로의 장점과 성공 경험을 찾아내어 표현하며,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활동의 시도를 촉진하도록 구성되었다(Table 1). 프로그램 진행은 청소년 관련 연구경험이 많은 본 연구진과 청소년 상담이나 프로그램 진행

Table 1. Content of Resilience Enhancement Program for Adolescents

Stage	Session	Subject	Content
Introduction & improving self-efficacy	1	What is resilience enhancement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rming up • Provide information about this program • Identify positive self-image
	2	Who am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entify self identity and merit • Find peers' merit, love myself • Imagine changed self-image in the future
Master of problem solving strategy	3	How can I control my stress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d key stressors • Use alternative to alleviate stressors • Practice coping skill in stressful situation.
	4	What is the wisdom of Solo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vide information about problem solving strategy • Search effective solution method
	5	What is my alterna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mote competency of self-control • Mobilize various alternatives to manage stressors • Wrapping up
Training of school adjustment	6	How can I express mysel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view self-expression and communication skill • Practice positive communication skill
	7	Let's express mysel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le self-expression in stressful situation • Calling for help
	8	Let's make a decision for my fu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view about problem of school adjustment on specially adolescence • Provide support system for community resource.

에 경험이 많은 G시 정신보건센터 청소년 담당자 2인의 주 진행과 모둠활동 촉진자로서 청소년 전문자원봉사자 5인의 보조진행으로 매주 1회 45분씩 정규수업시간에 8주 동안 제공되었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두 집단의 주요변수에 대한 정규분포 여부를 Kolmogorov-Smirnov test를 통하여 검정한 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χ^2 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주요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t-test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및 학교적응력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 실시 후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및 학교적응력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성별은 ‘남학생’ 46.0%, ‘여학생’ 54.0%였으며, 경제상태는 ‘중’ 69.4%, ‘상’ 24.2%, ‘하’ 6.5% 순이었다. 아버지와의 대화 정도는 ‘충분’ 71.8%, ‘보통’ 16.9%, ‘부족’ 11.3%였으며, 어머니와의 대화 정도는 ‘충분’ 88.7%, ‘보통’ 8.1%, ‘부

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N=124)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124)	Exp. (n=60)	Cont. (n=64)	χ^2 or Fisher's exact	P
		n (%)	n (%)	n (%)		
Gender	Male	57 (46.0)	28 (46.7)	29 (45.3)	0.02	.880
	Female	67 (54.0)	32 (53.3)	35 (54.7)		
Economic conditions	Wealthy	30 (24.2)	14 (23.3)	16 (25.0)	0.53 [†]	.777
	Ordinary	86 (69.4)	43 (71.7)	43 (67.2)		
	Poverty	8 (6.5)	3 (5.0)	5 (7.8)		
Communication with father	Good	89 (71.8)	43 (71.7)	46 (71.9)	1.55	.462
	Ordinary	21 (16.9)	12 (20.0)	9 (14.1)		
	Poor	14 (11.3)	5 (8.3)	9 (14.1)		
Communication with mother	Good	110 (88.7)	54 (90.0)	56 (87.5)	0.89 [†]	.635
	Ordinary	10 (8.1)	5 (8.3)	5 (7.8)		
	Poor	4 (3.2)	1 (1.7)	3 (4.7)		
Family relationship	Good	87 (70.2)	38 (63.3)	49 (76.6)	2.71 [†]	.254
	Ordinary	31 (25.0)	18 (30.0)	13 (20.3)		
	Bad	6 (4.8)	4 (6.7)	2 (3.1)		
Academic achievement	Good	48 (38.7)	26 (43.3)	22 (34.4)	1.43	.489
	Ordinary	41 (33.1)	17 (28.3)	24 (37.5)		
	Poor	35 (28.2)	17 (28.3)	18 (28.1)		
Relation with teachers	Good	68 (54.8)	34 (56.7)	34 (53.1)	0.42 [†]	.920
	Ordinary	54 (43.5)	25 (41.7)	29 (45.3)		
	Bad	2 (1.6)	1 (1.7)	1 (1.6)		
Relation with peers	Good	92 (74.2)	42 (70.0)	50 (78.1)	1.34 [†]	.577
	Ordinary	30 (24.2)	17 (28.3)	13 (20.3)		
	Bad	2 (1.6)	1 (1.7)	1 (1.6)		
Satisfaction for school-life	Good	68 (54.8)	33 (55.0)	35 (54.7)	0.36 [†]	.848
	Ordinary	46 (37.1)	23 (38.3)	23 (35.9)		
	Bad	10 (8.1)	4 (6.7)	6 (9.4)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 Fisher's exact test.

족' 3.2%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는 ' 좋음' 70.2%, '보통임' 25.0%, '나쁨' 4.8%, 학업성취도는 '상' 38.7%, '중' 33.1%, '하' 28.2%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는 ' 좋음' 54.8%, '보통임' 43.5%, '어려움' 1.6%, 친구관계는 ' 좋음' 74.2%, '보통임' 24.2%, '어려움' 1.6%, 학교생활만족도는 '만족함' 54.8%, '보통임' 37.1%, '불만족함' 8.1% 순이었다.

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및 학교적응력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두 그룹 간의 종속변수는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프로그램 실시 전 자기효능감 점수는 실험군 86.4 ± 11.53 점, 대조군 85.7 ± 10.71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t=0.32$, $p=.752$), 문제해결능력 점수는 실험군 110.0 ± 15.89 점, 대조군 115.8 ± 21.99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t=-1.70$, $p=.092$), 그리고 학교적응력 점수는 실험군 130.2 ± 25.26 점, 대조군 137.4 ± 24.40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61$, $p=.110$).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과 후의 차이검정

1) 자기효능감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기효능

감 점수는 중재 후 86.5 ± 12.19 점으로 0.1점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중재 후 84.4 ± 12.35 점으로 1.3점 감소하여,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자기효능감 점수가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0.80$, $p=.212$) (Table 4).

2) 문제해결능력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문제해결능력 점수는 중재 후 117.2 ± 17.89 점으로 7.2점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중재 후 112.7 ± 22.73 점으로 3.1점 감소하여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2.52$, $p=.007$) (Table 4).

3) 학교적응력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학교적응력 점수는 중재 후 139.1 ± 29.44 점으로 8.9점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중재 후 137.9 ± 33.15 점으로 0.5점 증가하였으나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학교적응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1.66$, $p=.004$) (Table 4).

논 의

중학생은 발달과정 상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Table 3.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N=124)

Variables	Exp. (n=60)	Cont. (n=64)	t	p
	M±SD	M±SD		
Self-efficacy	86.4±11.53	85.7±10.71	0.32	.752
Self-confidence	29.9±4.70	28.6±5.34	1.37	.174
Self-control efficacy	40.0±7.67	41.1±7.47	-0.83	.409
Preference for difficult task	16.5±3.18	16.0±3.59	0.85	.399
Problem solving ability	110.0±15.89	115.8±21.99	-1.70	.092
Problem solving confidence	38.4±6.69	41.0±8.71	-1.88	.063
Approach-avoidance style	54.1±8.80	56.9±12.20	-1.42	.158
Personal control	17.4±3.53	17.9±4.37	-0.73	.469
School adjustment	130.2±25.26	137.4±24.40	-1.61	.110
Adjustment for environment	26.2±7.28	27.6±8.07	-1.03	.304
Adjustment for teacher	28.7±7.36	29.3±8.49	-0.43	.668
Adjustment for lecture	25.1±6.17	26.3±5.75	-1.12	.265
Adjustment for peer	26.3±4.70	28.9±5.79	-1.89	.062
Adjustment for school-life	24.1±5.34	25.4±4.45	-1.47	.14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Effects of Resilience Enhancement Program on Dependent Variables

(N=124)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Self-efficacy	Exp. (n=60)	86.4±11.53	86.5±12.19	0.1±10.49	0.80	.212
	Cont. (n=64)	85.7±10.71	84.4±12.35	-1.3±10.19		
Self-confidency	Exp. (n=60)	29.9±4.70	29.0±5.77	-0.8±6.06	-1.27	.102
	Cont. (n=64)	28.6±5.34	29.0±5.29	0.4±4.68		
Self-control efficacy	Exp. (n=60)	40.0±7.67	40.9±8.73	0.9±7.64	2.16	.017
	Cont. (n=64)	41.1±7.47	38.9±9.68	-2.2±8.48		
Preference for difficult task	Exp. (n=60)	16.5±3.18	16.6±3.38	0.1±3.21	-0.63	.267
	Cont. (n=64)	16.0±3.59	16.5±3.75	0.5±3.69		
Problem solving ability	Exp. (n=60)	110.0±15.89	117.2±17.89	7.2±19.86	2.52	.007
	Cont. (n=64)	115.8±21.99	112.7±22.73	-3.1±25.79		
Problem solving confidency	Exp. (n=60)	38.4±6.69	41.4±7.63	3.0±8.80	2.61	.005
	Cont. (n=64)	41.0±8.71	39.8±9.42	-1.2±9.24		
Approach-avoidance style	Exp. (n=60)	54.1±8.80	58.0±9.51	3.9±11.53	2.25	.014
	Cont. (n=64)	56.9±12.20	55.4±11.83	-1.5±15.06		
Personal control	Exp. (n=60)	17.4±3.53	17.8±4.02	0.4±4.34	0.85	.198
	Cont. (n=64)	17.9±4.37	17.5±4.56	-0.4±5.50		
School adjustment	Exp. (n=60)	130.2±25.26	139.1±29.44	8.9±24.63	1.66	.004
	Cont. (n=64)	137.4±24.40	137.9±33.15	0.5±30.55		
Adjustment for environment	Exp. (n=60)	26.2±7.28	27.5±8.25	1.3±6.93	0.94	.173
	Cont. (n=64)	27.6±8.07	27.4±9.93	-0.2±10.38		
Adjustment for teacher	Exp. (n=60)	28.7±7.36	30.9±8.19	2.3±8.43	1.03	.153
	Cont. (n=64)	29.3±8.49	29.8±9.91	0.5±10.15		
Adjustment for lecture	Exp. (n=60)	25.1±6.17	27.8±7.27	2.7±6.42	2.02	.023
	Cont. (n=64)	26.3±5.75	26.6±7.10	0.3±6.76		
Adjustment for peer	Exp. (n=60)	26.3±4.70	27.7±5.63	1.4±4.96	1.73	.042
	Cont. (n=64)	28.9±5.79	28.6±6.53	-0.3±6.16		
Adjustment for school-life	Exp. (n=60)	24.1±5.34	25.2±5.29	1.1±4.97	1.07	.144
	Cont. (n=64)	25.4±4.45	25.5±5.37	0.1±5.21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초기 청소년기로서 많은 긴장과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므로 다른 시기보다 학교적응의 문제가 가시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달과정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초기청소년기인 중학생의 적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기반 중재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자기효능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

부영역 중 자기조절효능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 구성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삶의 역경이나 변화, 스트레스 상황 등을 극복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연구대상자인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1회기와 2회기를 통해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회기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참여자와의 신뢰감 발달을 도우며, 집단 목표를 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으며, 2회기에서는 자기 자신의

장점을 확인하는 활동을 주로 수행하면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등에서 단지 자기조절효능감을 상승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상자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기법에 있어서 유사한 이야기치료 프로그램을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Kim (2010)의 연구결과에서는 학교생활 적응, 희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Cho와 Lee (200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자기조절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자기조절능력,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진되어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제공된 프로그램과 본 연구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문제와 문제의 원인 사이의 영향에 대해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듦으로써 문제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도 자기조절효능감은 유의하게 상승된 결과가 나타났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와의 차이로는 이야기치료 프로그램이나 자기조절 프로그램의 경우, 소수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이미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대상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적용 시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다르게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이 모두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리라 사료된다.

Park과 Kim (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자원으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꼽고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지원과 행복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였으며, 가정월평균 수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30배 정도로 나타났다. 즉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효능감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더욱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대상자인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구성과 보다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의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감소한데 반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사소한 생활 사건들이든, 갑작스럽고 중대한

사건들이든 간에 그것들은 사람들의 신체적, 심리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Higgins (1994)는 적응유연한 사람들은 문제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다루고 이겨내는 것이 가능하기에 문제 상황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Block과 Kremen (1996)의 연구에서는 적응유연한 아동들은 도전적인 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해결력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Hong (2005)의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이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제해결능력의 하부영역 중 문제해결자신감과 개인적 통제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문제해결능력의 하부요인 중 접근-회피스타일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문제해결자신감과 개인적 통제가 향상되어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이 낮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적응을 잘 못하고 불안과 걱정이 많으며,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자신감이 없으며, 또한 문제해결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 하기 때문에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비해 스스로 문제해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념이 더 높고,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므로 사회적응을 높일 수 있다(Kim, 2004). 즉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수록 일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져, 사회적응이 증진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과정 상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초기청소년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성공적으로 발달과업을 수행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학교적응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학교적응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 가정, 학교, 사회로 볼 수 있다. 그 중 학교에서 학생이 받는 교육적 영향을 학교생활이라 한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학업성적이 향상되며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발달은 물론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Jeong, 2007). 즉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래 사회 발전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Lee와 Cho (2010)의 학교적응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시기가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학교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 등이 교육적 차원에서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의 학교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요인이 바로 적응유연성이다. 실제 Sin과 Gu (2002)의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에 잘 적응하는 반면, 적응유연성이 낮은 아동은 외적환경의 변화나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며 감정이나 학업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며 이로 인해 학교적응에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Lee와 Cho (2010)는 청소년 발달과 적응문제를 설명하면서,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Roeser와 Eccles (1998)는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나 부모 양육태도가 좋지 않더라도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적응유연성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환경 중의 하나인 학교에서의 적응과 그들의 학교 및 개인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대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정신건강 측면에서 학교적응은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학교는 교사들에 의해 학생들의 행동, 인간관계, 학업수행 등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검토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Berman, Jobes, & Silverman, 2006). 또한 학생과 부모, 교사, 정신건강전문가 및 서비스기관 등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점(Power, 2003)에서 학교는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주요한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성장발달 단계 상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기청소년기에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올바른 사회화과정을 습득할 수 없게 되어, 향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 문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이들에게 예방적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조치이다. 따라서 이미 문제가 발생된 학교 부적응 청소년이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보다 오히려

미래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예방적 측면에서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이 꾸준히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사 및 학교정신보건사업 담당자들을 통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발달과정 상 어려움에 직면한 초기청소년들에게 예방적 측면에서,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프로그램의 횟수와 기간, 집단의 규모 등을 달리하여 비교할 수 있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관련변수들, 즉 개인내적 요인, 가족 관련 요인, 학교 관련 요인 등의 다양한 변인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와 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추적연구 역시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및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수행 시 모집단을 선택함에 있어 전국 단위의 청소년이 아닌 특정 도시에 한정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문제해결능력 및 학교적응력 점수가 유의하게 상승되었으나 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간호중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어, 보건교사 및 학교정신보건사업 담당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Bak, B. G., Lee, S. Y., & Song, J. H. (2010). Development of ego-resiliency enhancement program and testing its effects.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24(1), 61-8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erman, A. L., Jobes, D. A., & Silverman, M. M. (2006). *Adolescent suicid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2n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Cho, M. J., & Lee, J. H. (2009). The self-regulation program development for youth and verification of its effec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6(1), 31-46.
- Common Wealth of Australia (2001). *Mind Matters: Enhancing resilience program*. Retrieved January 15, 2007, from <http://cms.curriculum.edu.au/mindmatters>.
- Compas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 (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293.
- Garnezy, N. Z.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 (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 213-233). New York: Pergamon Press.
- Han, S. C. (2006). The effects of the program for improving protective factors on a resilience of "at-risk"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20(1), 119-136.
- Heppner, P. P., & Peterson, C. H.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66-75.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t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California, USA.
- Higgins, G. (1994). *Resilient adults: Overcoming a cruel pas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Hong, Y. S. (2005). The effect of life stress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and the buffering effect of problem-solving ability. *Journal of Korean Social Children Welfare*, 20, 8-33.
- Jeong, I. S. (2007). *Effect of resilience enhanc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chool adjustment and stress coping 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 Kim, A. Y. (1997). A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tolerance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11(2), 1-19.
- Kim, H. K. (201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arrative therapy program for school maladjusted youth.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 329-349.
- Kim, M. S. (2002). *A study on the resilience as influential factors to juvenile delinquents' daily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Pusan.
- Kim, S. M. (2004). *Effect of reality therapy on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inpatients with psychotic disor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Kim, Y. R. (2000). An analysis on the validation of school learning motivation scale (a) & school-related coping scale (b) and relations between (a) & (b).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on Hongik University*, 17, 3-37.
- Lee, H. J., & Cho, Y. J. (2010). The exploratory study of longitudinal changes and variables predicting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 253-278.
- Lee, H., & Jo, H. I. (2006). A validation study of the resilience scale in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 353-371.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Moon, E. S., & Kim, C. H. (2002).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16, 219-241.
- Moon, S. M., & Hwang, Y. S. (2006). Effects of internal developmental assets program on school resilience in high school gir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3), 49-77.
- Park, Y. S., & Kim, U. C. (2009).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among Korean adolescents: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financial resources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 399-429.
- Power, T. J. (2003). Promoting children's mental health: Reform through interdisciplinary and community partnerships. *School Psychology Review*, 32, 3-16.
- Roeser, R. W., & Eccles, J. S. (1998). Adolescents' perception of middle school: Relation to longitudinal change in academic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1), 123-158.
- Sin, H. S., & Gu, B. Y. (2002). Students at high risk of dropping out of school: Do they differ from school dropouts and low-risk students?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16(3), 121-145.
- Song, H. Y., Lim, J. Y., & Nam, K. A. (2006). Validation of resilience scale in Korean adolesc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 31-39.
- Yoo, S. K., & Shim, H. W.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